중앙SUNDAY-아산정책연구원 공동기획 한국문화대탐사⑧ 선비〈中〉

"조선인에겐 더러운 피"… 일제가 왜곡한 선비상 아직 못 지워

맹자는 말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독한 연후에 남들도 그를 모독한다." 조선 선비들의 이전투구로 여겨지는 당쟁(黨爭)이란 용어. 스스로 선비를 모욕하는 것 아닐까. 조선에서는 당쟁 대신 당의(黨議), 즉 '당의 논의' 라는 말을 썼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당쟁에 더 익숙할까. 일제 식민사학의 독기 때문이다. 선비의 얼굴에 오물을 던진 일제 5인방을 통해 선비 수난사를 돌아본다.

안성규 기자, 김석근 아산서원 부원장
askme@joongang.co.kr

▲전남 장성의 필암사원. 호남 사림의 중심으로 선조 때 하서(河西) 김인후를 기념하기 위해 후학들이 세웠다.

◀퇴계를 기념하는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도산서원. 서원은 동서당, 전교재를 갖춘 큰 건물이지만 출발은 사진에 보이는 자그마한 서당이었다. 퇴계 정신은 남인(南人)의 정신적 맥이 됐고 임진왜란과 구한말에는 의(義)의 기치를 내세워 의병으로 발현됐다. 퇴계는 일본의 유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용철 기자

1680년, 정원로가 재위 6년 차 숙종에 아뢴다.

"허견(숙종에게 신임받은 대신)이 복선군(인조의 손자·숙종의 5촌)에게 '전하 춘추 왕성하지만 자주 편찮으시고 세자도 없는데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왕위를) 사양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변고가 생기면 복선군을 추대한다니, 병이 잦고 후사도 없던 숙종은 역모로 받아들여 병조에 국청을 설치해 국문할 것을 명한다. 끌려온 남인(南人) 허견은 토설한다. "기미년(숙종 5년 1679년) 정월 복선군과 정원로의 집에 모여 왕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 서인들이 임성군(인조의 손자)을 추대하면 화를 면할 수 없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논의하였습니다." 복선군도 고백했다. 그는 교살됐다. 허견과 나머지 관련자들 가운데 2명은 처형, 1명은 사약, 6명은 곤장을 맞다 죽었다. 남인들도 처벌받았다.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이다. 출척은 관직을 삭탈하거나 올려주는 것이다. 숙종 때는 장희빈 사건도 있었다.

건국대 신복룡 명예교수는 숙종조에 정치적 사건으로 죽은 사람을 38명으로 집계한다. 당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사학자 오다 쇼고(小田省吾)는 "왕권이 가장 미약했던 숙종 때 당쟁이 격화됐다"고 하지만 신 교수는 "당쟁이 가장 활발했던 숙종 연간은 조선왕조 가운데 가장 흥륭(興隆)했고 백성이 가장 평안했던 시기"라고 한다.

경신대출척은 오늘날 정치의 비열함과 닮았다는 자조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식민사관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쓰는 것일 수 있다. 일제는 조선사편수회의 작업이 끝나는 1920년대까지 선비상을 왜곡시켰다. 그 중심에 이용학자 5인이 있다.

선두는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그는 1904년 『한국정쟁지』라는 논문으로 동경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서론이 고약하다. "조선 정치는 사사로운 권리 쟁탈이다. 음모가 계속되고 참화를 불사한다…당쟁은 음험하다. 뼈를 깎고 시체에 채찍질하는 참화를 연출한다…한국이 일본의 고문(顧問) 정치에 처하게 된 원인은 고질적인 당쟁이다."

일제의 왜곡 5인방

시데하라 다이라
"당쟁은 음험하다. 뼈를 깎고 시체에 채찍질하는 참화를 연출한다 - . 한국이 일본의 고문 정치에 처하게 된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왕위를) 사양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도루
"조선의 주자학(성리학)의 특징은 '종속성·사대성·분열성' 이다. 조선 사회 내면엔 ▶사상의 고착성 ▶사상의 무창견(無創見) ▶당파심 등 6개 형질이 있다." 1912년 『조선 및 만주』

오다 쇼고
1922년 식민사학의 완성편인 『조선사강좌』시리즈의 실무 책임자. 경성제대에서 정년 퇴직까지 식민사학자들을 양산한다.

하야시 다이스케
1912년 최초로 한국통사 『조선통사』(일어판)를 쓰면서 한 장(章)을 당쟁에 할애. "당파는 확고한 주의·강령이 아니라 형세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나뉜다."

호소이 하지메
"조선인엔 특이한 더러운 피가 흐른다 - . 붕당의 악폐는 근절시키기가 어렵다. 그 피를 어쩔 것인가 - ." 1921년 『붕당·사화의 검토』

동경제대 출신인 그는 시데하라의 후임으로 관립고등학교 교사가 됐다. 그리고 1912년 4월부터 6차에 걸쳐 '조선 및 만주'에 글을 쓰며 조선 주자학(성리학)의 특징은 '종속성·사대성·분열성'이라고 했다. 1914년 『조선의 이언집 부 물어』라는 책에선 '조선사회 내면엔 ▶사상의 고착성 ▶사상의 무창견(無創見) ▶당파심 등 6개 형질이 있다'고 했다. 전주대 이형성 외래 교수는 "다카하시는 시데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총독부는 다카하시의 주장을 담은 『조선인 특성의 연구』를 단행본으로 만들어 1920~21년 전국에 배포했다.

경성제대 예과 교수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는 1912년 최초로 한국통사인 『조선통사』(일어판)를 쓰면서 한 장(章)을 당쟁에 할애했다. "당파는 확고한 주의·강령이 아니라 형세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나뉜 것"이라고 썼다. 대학 교재로도 사용됐다. 신복룡 교수는 "그는 최초로 당쟁사를 확대 재생산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오염된 일인은 기자 출신 호소이 하지메(細井肇)다. 1921년 쓴 81쪽짜리 『붕당·사화의 검토』는 가관이다. "조선인에겐 특이한 더러운 피가 흐른다…희대의 영웅도 붕당의 악폐는 근절시키기가 어렵다. 그 피를 어쩔 것인가…." 이 때문에 그는 '조선 멸시론자'의 대표로 간주된다.

1920년대까지 선비에 나쁜 인상 덧칠
시데하라 "당쟁은 음험, 참화만 연출"
다카하시 "조선인은 분열적 민족"
선비의 결사인 붕당 멋대로 재단

오다 쇼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 그는 동경제대 문과 출신으로 1908년 학부 서기관으로 한국으로 왔다. 조선사 왜곡의 선봉인 조선사편수회의 위원으로 1922~25년 완간된 『조선사강좌』 시리즈의 실무 책임자이자 핵심 역할을 했다. 이 시리즈로 식민사학은 완성된다. 경성제대의 조선사강의교재로 썼고 오다는 퇴직 때까지 경성제대 사학과에서 식민사학자를 길러냈다.

식민사학의 독은 한국인의 정신을 오염시켰다. 『한국 붕쟁사』를 쓴 매일신보 기자 출신 홍승구가 대표적 인물이다. 신 교수는 "홍승구는 '개벽' 지에 당쟁 망국론, 당쟁 500년, 이조 당쟁사를 썼다. 홍경래란도 당쟁이었다는 식이다. 식민사학의 첨병이었다"고 했다. '개벽' 지 주간 차상찬도 1934년 '사화와 당쟁'을 쓰면서 오다의 글을 베끼다시피 했다.

식민사학자에게 '조선인 기질론'은 중독 같은 것이었다.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는 1940년 『조선사개설』에서 "유력한 권위 아래 모이고 당벌을 결성하는 것은 조선의 국민성, 민족적 결함이다. 붕당의 항쟁 시간은 세계적 기록이다. 한인은 뇌동성이 특징이다"고 했다. 시카타 히로시(四方博)는 1951년 『구래의 조선사회의 역사적 성격』에서 "조선 민족의 특징은 파벌성"이라고 했다.

식민사관의 악영향은 우리 안에도 내재돼 있다.

"17세기 이후 사림파끼리 반목질시하였다. 이해관계와 학파·지연 차이에서 붕당을 만들고, 당에서 당이 갈리고 파에서 파가 갈려 모함·중상을 일삼고…당쟁은 조선 후기 정치사의 큰 오점으로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피폐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일제 식민사학자의 글 같지 않은가? 유감스럽게도 문교부가 발행한 1977년판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당쟁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배운 지금의 50대 이상은 '선비' 하면 '당파'부터 떠올리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비정신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그 이유로 권위주의(43.8%)-당파 싸움(22.8%)-융통성 부재(17.8%)를 꼽았다. 당파 싸움을 꼽은 이들 가운데 40대 이상의 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거나 웃돈다.

그렇다고 붕당의 심각성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조선 내부에서도 경고는 계속 나왔다. 선조시대 영의정 이준경은 임금에게 보내는 유소에서 "허위지풍(붕당 싸움)을 없애지 않으면 국가가 어려운 근심을 맞는다"고 했다. 형을 당쟁으로 잃고 벼슬길도 끊긴 남인(南人) 이익은 『성호집(星湖集)』에서 "과거를 자주 실시해 사람은 많은데 관직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유수원(柳壽垣)은 『우서(迂書)』에서 "문벌과 주론자(主論者)들로 인해 당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언론을 주도하는 3사(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주론자가 배후와 결탁, 여론을 조작해 당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3사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그 자신 당쟁의 희생자인 이중환도 『팔역지(八域誌)』에서 대간을 뽑는 이조전랑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제형은 『조선정감(朝鮮政鑑)』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론이 달라져 당쟁이 발생한다"고 했다. 조선말기 이건창도 『당의통략(黨議通略)』에서 "시비가 불분명한 일로 거국적인 붕당 시비가 200년간 계속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비판 논리만으로 붕당 논쟁을 비난할 수는 없다. 긍정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율곡 이이가 당의에 가담한 데 대해 선조는 "이이만 같다면야 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적어 걱정이다. 나도 주희의 말과 같이 그대들의 당에 들고 싶노라"고 칭찬했다.

'보수·진보'로 붕당을 설명한 율곡은 "동인은 대부분 연소한 신진이다…이끌고 도와야지 배척하고 눌러 뜻을 저지해선 안 된다. 서인은 대부분 선배 구신(舊臣)인데 결점을 감싸고 장점을 드러내야지 배척해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비판자인 이중환도 "전랑권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300년간 계속된 긍정적 제도"라고 했고, 이건창도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도모한 것은 적고 나라를 위한 것이 컸다"고 짚었다. 윌리엄 그리피스도 『은자의 나라 조선』에서 "(붕당) 당사자들의 목적은 유럽·미국 정당이 추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붕당은 유학의 본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송(宋)대의 구양수는 "붕당은 예부터 있었던 일이며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했고, 성리학 대성자인 주자도 "붕당은 염려할 것이 아니다. 군자의 당이라면 인군(임금)도 그 당이 되게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인 이나바 군잔(稻葉君山)도 "당론은 사회문화 발달에 따라 생기는 보편적 산물이다. 없다면 문화가 저급한 것"이라고 했고, 이시이 도시오(石井壽夫)도 "붕당 출현으로 조선은 회춘을 맞았다…당쟁이 경직되면서 우세한 무리들은 안일에 빠져 무능·무력해졌다"고 했다. 붕당엔 순기능·역기능이 다 있는 것이다. 시데하라류(類)의 '민족성론'은 "그렇다면 삼국에서 고려 때까지는 왜 안 그랬는가"라는 반론에 부닥친다.

그리고 당쟁이라는 용어,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는 '당파성 비판'이란 글에서 "시데하라의 『한국정쟁지』가 당쟁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선 용어는 당의(黨議)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니 '당쟁'은 영조 때 한 번 나올 뿐이며 '당의'가 600여 회 나온다.

당쟁이 사라진 영·정조 이후를 면밀히 볼 필요도 있다. 추상 같은 정론이 사라지면서 삼정이 문란해지며 순종·헌종·철종 시대엔 세도정치가 나타났다. 탕평책은 '무정치 현상'을 유발한 것이 아닐까.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조 사후 기존의 붕당이 관료 집단화하면서 권력이 왕의 근신에게 넘어가고 세도정치가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그런 흐름은 학문 연구에도 반영된다. 본지가 1981~2012년 당쟁을 주제로 한 논문 19편을 조사했다. 9편의 논문은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10편은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조선 선비들도 붕당엔 문제 의식
黨爭이라 하지 않고 黨議로 정의
"언로 막으면 나라 흔들린다" 걱정
당의 사라진 정조 이후엔 세도정치

이런 글이 있다.

"붕당정치의 원리는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상호 견제와 비판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상대의 비판을 의식해 책임정치를 해야 했고 정책의 실패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그러나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대립과 분열이 격화돼 국가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법문사의 『한국사』 교과서 붕당 부분이다. 77년 이후 30여 년 만에 두드러진 변화다.

다시 맹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본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독한 연후에 남들도 그를 모독한다."

우리가 먼저 선비의 가치를 회복하면 다른 이들도 높이 받들 것이라는 의미로 새겨도 좋을 것이다.

취재지원=아산정책연구원 김보아 연구원
이용위·임보미 인턴

국난 때 빛난 진정한 선비정신 의병 일으키는 '거의' 최고 가치

〈擧義〉

김석근·이승률 아산정책연구원 인문연구센터
root@asaninst.org

시인 이육사, 일제 암흑기 최고의 저항 시인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義)를 찾아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퇴계 이황의 14대 손이다. 그가 자랐던 안동은 유교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곳, 나라가 어려울 때 선비정신이 더욱 빛났던 고장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한 선비정신은 빛을 발한다. 과연 어떻게 '절의(節義)'를 지켜낼 것인가. 전주대 이형성 교수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비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대개 세 가지다. 19세기 말에는 거의(擧義), 순절(殉節), 자정(自靖)이 있었다. 모두 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여겼다"고 한다.

가장 으뜸은 역시 '거의', 의병(義兵)을 일으키는 것이다. 거병(擧兵). 이미 임진왜란 당시 고경명·김천일이 그랬다. 정옥자 서울대 명예교수는 "임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의병 덕분"이라고 단언했다. 당시 의병은 백성들이 스스로 지원하는 군대였다. 왜군이 진격하면 보급로를 끊고 보급품을 태웠다. 19세기에 와서는 면암 최익현과 제자 임병찬, 노사 기정진, 의암 유인석이 대표적인 예다.

참 선비의 응집력은 아주 강하다. 최익현은 자기 고향이 아닌 호남에서 의를 호소했지만 모두 동조하고 거병했다. 최익현과 임병찬은 정읍·순창·금산에서, 그리고 기정진의 손자 기후만은 장성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펼쳤다. 그런 기상을 가진 사람들은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만주·연해주로 떠났다. 그들은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송실대 곽신환 교수는 "선비들 가운데 노론에겐 조선 왕조를 지키는 게 여러 가지로 중요했기 때문에 의병이 많이 나왔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제를 많이 괴롭힌 것도 노론 우암 송시열 계열이었다. 노론이 많은 전라도 쪽에서 의병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실제로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이 자리 잡고 있는 풍기·영주·안동 지역에서는 남인의 강한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의성에 사는 남인의 후손 김용수씨는 집안에서 전해들은 일화를 소개한다. 을미년 단발령 때 고종황제가 유림에게 밀령을 내려 1890년대 말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도 의병이 일어났다. 의병 대장 김상동, 김수욱은 일본 군대와 접전하다가 마침내 피를 흘리면서 전사했다. 김수욱은 그의 증조부이며, 당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소수서원 박물관 박석홍 관장은 "1907년 11월 10일 의병 500명의 아지트인 순흥에 일본군 특공대 1750명이 들이닥쳤다. 불을 질러 한옥 180채를 태웠으며, 그보다 세 배 더 많은 민가가 전소됐다. 이후 열사 선비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만주 등지로 가게 됐다"고 한다.

다음은 '순절'이다. 절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택하는 길이다. 국치(國恥)를 원통해 하면서 자결한 민영환, 『매천야록』을 남긴 황현, 대한제국 초대 러시아 공사관 이범진 같은 지사들로 죽기를 각오하고 거병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의사 안중근, 의열단원으로 활약하다 옥사한 시인 이육사, 조국의 아픈 현실을 가슴에 품고 시를 썼던 윤동주에게도 그런 선비정신이 이어졌다. 경술국치 때에 안동지방 유생들의 순절이 많았음을 『기려수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의'와 '순절' 사이에 있는 제 3의 길이 '자정'이다. 어지러운 현실을 떠나 도학(道學)에 매진하는 일이다. 일종의 은거다. 노론 가운데 서울 중심이었던 낙론 계열의 간재 전우(1841~1922)가 대표적이다. 그는 부안 반도 앞 계화도로 들어갔다. "500년 종사도 중요하지만 3000년 도통(道統)을 잇는 게 더 소중하다. 무가치하게 목숨을 버리지 말고, 학문을 일으켜 도로써 나라를 찾아야 한다"며 "총칼 앞에 헛되이 목숨을 버리기보다 학문을 열심히 닦아 뜻을 펴다면… 어느 때인가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림계가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요구했던 이른바 '파리장서(巴里長書)'에도 그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처신은 많은 비난과 지탄을 불렀다. "죽기가 무서워 의병을 일으키지 못했고, 화가 미칠까 두려워 외세를 배척하지 못했다"는 비판, '부유(腐儒, 썩어 빠진 유학자)'라는 비난도 받았다.

현실 받아들일 수 없을 땐 순절
이육사·윤동주도 선비정신 이어
'자정'은 현실 떠나 은거하는 방식

이들 세 갈래 길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종래의 '의리'가 무용함을 느끼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일 역시 식견을 가진 선비들의 몫이었다. 과감한 사고 전환을 시도한 부류도 있었다. '개화(開化)'다. 개화파는 세상의 변화를 직감하고 활로를 찾고자 했다. 젊은 혈기로 3일 천하를 구가했던 갑신정변(1884)의 주역 김옥균·박영효·서광범·홍영식과 그 주변 인사 유길준·윤치호는 양반 가문의 핵심 선비였다.

진짜 부유에 해당하는 이들의 못난 처신도 많았다. 친일(親日)을 개화로 알다가 변절한 사람들. 을사오적(乙巳五賊)이 대표적이다. 처음엔 '개화'운동으로 시작했지만 나라가 망한 뒤 대안을 찾지 못해서 친일로 기울어진 사람들도 있었다. '변절'한 선비들이다. 어려울 때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선비들의 기백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가다듬어야 할 정신문화 유산이다. 하지만 위기가 닥쳐서 의를 행하기 전에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냈더라면 또 어땠을까. 큰 선비 홍유(鴻儒)의 통찰력, 통유(通儒)의 예지를 갖춘 선비정신이 그리워진다.

선비정신은 어려울 때 더 빛난다. 구한말 일제의 침략에 선비들은 분연히 일어났다. 신민회 독립운동가들이 용수를 쓴 채 형무소로 끌려가고 있다. [중앙포토]

『당의통략』 분석으로 본 일제 '당쟁 처참론'의 허구

조선 당쟁 기간 중 140명 처형… 日은 텐구당 난 때만 352명 참수

〈天拘黨亂, 1864. 5~1865. 1〉

안성규 기자, 이승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제는 조선시대 붕당사를 왜곡하는 데 골몰했다. 민족성, 더러운 피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처참함을 강조했다. 오다 쇼고 같은 이를 비롯해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조선왕조 후기에는 당쟁으로 살육행위가 격전처럼 전개됐고 참극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 점은 이견창이 『당의통략』에서 붕당 폐해의 원인을 8개로 지적하며 그 하나로 형벌과 옥살이 벌의 지나친 엄함을 꼽은 것과 유사해 보인다.

시데하라가 '조선인 스스로가 고백한 글' 이란 식으로 악용한 서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처참했나. 『당의통략』을 직접 분석한 두 연구가 있다.

경남대 김종덕 교수의 1981년 논문 '이조 당쟁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당의통략』의 갈등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사형당한 이는 19명이다. 전체 처벌은 128건이며 사형을 제외하면 귀양 57건, 파면 25건, 관직삭탈 10건, 책망 7건, 외직 5건, 국문 3건으로 분류했다. 그리 잔인해 보이지는 않는다.

건국대 신복룡 명예교수도 1988년 『당의통략』의 사망자를 연구했다. 김 교수의 조사결과와는 다르다. 선조 때 21명, 인조 2명, 효종 7명, 숙종 38명, 경종 38명, 영조 34명으로 모두 140명이 죽었다. 이 중 역모자 63명, 임금을 속인 자 2명, 반정으로 죽은 자 9명, 장희빈 사건으로 죽은 자가 13명이다. 신 교수는 "순수 당쟁으로 죽은 이는 79명"이라고 했다.

신 교수 분석에 따르면 사망자도 당쟁보다 왕실 전복과 관련돼 많았다. 선조 때는 '정여립의 난'이 있었다. 숙종 때는 임금을 바꾸려한 시도 때문에 발생한 '경신대출척', 경종 때는 '임금 암살 시도' 사건인 목호룡의 고변이 있었고, 영조 때는 목호룡의 고변이 거짓으로 탄로나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인명은 중요하다. 그러나 최대 140명으로 잡더라도 180년에 걸친 사형의 수를 처참하다고 본 것은 과장이 아닐까.

서유럽 정치사는 훨씬 더 참혹하다. 프랑스 혁명 때인 1792년 8월 10일 하루 1300명이 처형됐다. 1795년 7월 21일엔 하루 만에 왕당파 718명이 처형됐다. 파리 코뮌 기간 중 '피의 주간'인 1871년 5월 21~28일엔 2만 5000명이 피살됐다. 제정러시아의 '피의 일요일'인 1905년 1월 22일 하루에 500여 명이 피살됐다(이상 신복룡 『한국정치사』). 신 교수는 "조선의 국법은 무분별한 참극을 허용치 않아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에서 같은 대량 학살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일, 당쟁 기간도 악의적으로 늘려
프랑스 혁명 땐 하루 1300명 처형
당쟁 참혹성 주장 설득력 없어

▶이건창의 『당의통략』. 1575년(선조 8)부터 1755년(영조 31)까지 180년의 붕당사를 정리했다. 양반 중심 정치가 극복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붕당을 비판했는데 일본의 식민사학자 시데하라가 이를 당쟁 폐해론을 주장하는 근거로 교묘하게 악용했다.

일본도 잔혹성엔 유럽을 뺨친다. 에도시대 막부 말기인 1864년 5월 2일 미토번(水戶藩)의 개화파 중 과격파가 반란을 일으킨다. 막부에 대해 쇄국론의 기치를 내걸고 거병한 것이다. '텐구당(天狗黨)의 난(1864. 5~1865. 1)'이다. 막부의 미·일 수호통상조약 체결에 반발하는 일왕과 막부의 대립, 번 내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 등 파벌에 얽혀 발생했다. 일제 식민지 학자들이 '당쟁'이라 부르는 조선의 붕당 논쟁의 성격임에도 사무라이의 나라답게 칼의 대결이 벌어졌고 피바람이 불었다. 난은 실패로 끝났다. 정리를 담당한 다누마 오키다카(田沼意尊)의 막부군은 사정없었다. 주요 인물은 그냥 감금했지만 나머지는 수갑·족쇄를 채워 비좁은 청어 창고에 짐짝처럼 밀어넣었다. 하루에 주먹밥 하나와 더운 물 한 잔. 사망자가 속출했다. 창고에서 죽은 사람만 20명 이상이었다. 난이 실패로 끝나자 828명의 투항자 중 352명을 참수했다. 일본이 과거사를 돌아본다면 한국의 당쟁만 처참했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식민사학자들은 담의(당쟁) 기간도 길게 잡으려고 애썼다. 그들의 주장은 ▶230년 설(선조 8년 1575년~영조 말기) ▶290년~330년 설(오다 쇼고 주장) ▶410년 설(시데하라 주장)로 분류된다. 신 교수는 "시데하라는 당쟁의 참혹성을 과장하려고 사화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화는 당쟁과 다르다"며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추방되고 서인이 득세한 1725년까지 50년 정도를 당쟁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 강주진 전 중앙대 교수도 『이조당쟁사연구』에서 '당쟁은 경신대출척부터 탕평책이 정착된 1772년(영조48년)까지 92년 정도'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일제의 어용 한국 지식인이 기간을 더 늘렸다. '개벽' 주간이었던 차상찬은 『사화와 당쟁』에서 조선개국부터 멸망(1392~1910)까지 520년을 당쟁 기간으로 봤다. 조선조 내내 싸웠다는 것이다. 홍승구(홍목춘)는 1934년 11월 '개벽'의 복간 창간호에서 한술 더 떠 고려 초~조선조 말까지 900년간으로 봤다.